

# 캐스퍼 효과 ‘시들’...경차 부활 쉽지 않네

### 1~5월 국내 5만562대 팔려 전년 동기대비 8.2% 줄어 레저용 등 대형화·고급화 영향

‘광주형 일자리’의 마중물로 탄생한 현대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출시 초기 인기를 끌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며 ‘경차의 부활’이 기대됐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국내 경차 시장이 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역대 최대 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경차 1위’ 왕좌에 오른 캐스퍼의 활약으로 10만대 아래 추락했던 경차 시장 규모가 지난해 13만대 이상 크게 확대됐지만, 캐스퍼 신차 효과가 떨어지면서 경차의 인기가 다소 시들해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3월 카이즈유틸리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시장에서 경차는 총 5만562대가 팔리며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092대에 비해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시장 경차 판매량은 2021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13만4294대를 기록하며 4년 만에 13만대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올해는 11만~12만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경차 판매량은 2021년 9만8781대로 10만대를 밑돌았으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결실인 캐스퍼가 출시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경차 시장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캐스퍼 인기로 부활 조짐을 보였던 국내 경차 시장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출시 3년 차를 맞은 캐스퍼의 신차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대형화와 고급화되면서 경차의 인기가 식어가는 분위기다. 사진은 국내 대표 경차 모델인 기아의 ‘레이’ (왼쪽)와 현대차의 ‘캐스퍼’.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캐스퍼의 판매가 계속 줄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반적인 경차의 입지가 다시 좁아지고 있다.

현대차 판매실적에 따르면 캐스퍼는 지난달 4064대가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지난해 11월(5573대)과 비교하면 27.1% 줄어든 수치로, 캐스퍼는 지난해와 달리 매월 판매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앞서 캐스퍼는 2021년 9월 첫 출시 이후 판매를

매달 판매량이 3000~4000대로 뛰어 올랐다. 지난해에도 월 평균 40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 지난해 11월에는 5573대가 팔렸다. 현대차 내 판매 순위도 포터(7020대)와 아반떼(5700대)에 이어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한해 4만8000여대가 판매되는 등 명실상부 국내 자동차 시장 경차 1위에 이름을 올렸었다.

최근에는 캐스퍼가 출시되기 전 대표 경차였던 기아 레이도 선전을 하고 있다. 레이는 지난해 4576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보다



20.1% 더 많이 팔렸다. 또 올해 들어 매월 캐스퍼의 판매량을 추월하기도 했다.

캐스퍼가 신차 출시 이후 최근까지도 월 4000대 판매 수준을 보이는 데다, 기아의 레이가 선전하고 있지만 경차의 인기 상승세는 꺾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캐스퍼에 이어 새로운 경차 신 모델 출시 계획도 없다는 점도 부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이 레저용 차량(RV) 등 대형화, 고급화되면서 경차의 인기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경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차종을 집중하고 있다”며 “모닝과 스파크가 이끌던 경차 시장에 레이와 함께 캐스퍼가 가세하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으나, 워낙 대형차의 인기가 높아 경차 시장이 더 이상 확대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저변 확대 협력 강화

### 환경부·사랑의열매 등과 협약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친환경차 저변 확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현대차그룹은 3일 대전에 위치한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월드비전과 지역사회 친환경차 저변 확대 및 사회복지기관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 한화진 장관,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월드비전 조명한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협약 당사자들은 작년 3월부터 1년여간 전기차-충전기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인 ‘E-share’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전국 40개소의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마다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기를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운행률이 높은 사회복지기관의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크게 증진시켰다.

현대차그룹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share’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며, 시범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던 대전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의 충전소 개소에 맞춰 협약식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현대차그룹 등은 우선적으로 올해 복지기관 40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각 기관마다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기관 이용자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체험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프로그램 운영 예산 기부 및 전기차 지원을 ▲환경부는 복지기관 내 공용 충전기 설치 및 관리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월드비전은 복지기관모집 등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관리를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등은 향후 3년에 걸쳐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120대, 공용 충전기 240기를 지원하고,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1년9개월만에 ‘뒤바뀐 운명’

### 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과정서 잔금 못치워 계약 해지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는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회생법원(장원지법)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해 왔다.

스토킹 호스란 회생기업이 인수 의향자와 공개 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은 뒤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KG모빌리티는 지난 3월 에디슨모터스 인수에 대한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데 이어 예비실사 진행 후 5월에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KG모빌리티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면서 에디슨모터스는 약 8개월간 이어온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 계획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20년 12월 쌍용차가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2021년 10월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

으나, 1년 9개월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쌍용차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급기야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추진 여파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데다, 강영권 회장 등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악재로 도리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처지가 됐다.

이후 KG그룹을 새 인수자로 맞아 쌍용차에서 이름을 바꾼 KG모빌리티는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전기버스를 내세워 진출하는데 에디슨모터스 인수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인수 추진에 나섰다.

KG모빌리티는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해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형 전기버스에 국한된 라인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형 트럭, 버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및 구매소싱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시장 확대를 통한 판매물량 증대에 집중한다.

이번 과정에는 KG모빌리티가 스포츠유틸리티차 전문기업으로서 보유한 자동차 기술개발 역량과 성장 노하우, 회생절차를 통한 성공적인 기업체질 변화 경험 등을 심본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연휴스

## 여름 휴가 시원하게 떠나세요

### 벤츠 ‘여름맛이 캠페인’

### 내달 12일까지 무상 점검·순정 부품 할인

메르세데스-벤츠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순정 부품 할인 캠페인에 나선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다음 달 12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순정 부품 할인하는 ‘2023 여름맛이 캠페인(Enjoy Summer)’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올여름 벤츠 고객들의 안전한 주행 환경 지원을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 6주간 여름철 집중 관리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과 주요 부품 할인 혜택 등을 전국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한다.

캠페인 기간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오일을 비롯해 냉각수, 에어필터, 타이어, 와이퍼, 브레이크 패드·디스크, 배터리 등 여름철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주요 항목들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여름철 쾌적한 운행에 필요한 와이퍼블레이드 및 실내 공기정화필터 등 벤츠 순정 부품에 대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



인 및 오프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 & 컬렉션 샵’에서 선글라스, 여행용 캐리어 등 여름휴가 기획 상품과 사계절 플로어 매트 등 평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차량 제품도 15% 할인 판매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 고객의 즐거운 운전 경험을 위해 타이어 4본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교환 비용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은품을 증정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쉐보레와 함께 떠나요!

### 전기차 보조금 외 추가 지원·60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는 7월을 맞아 ‘시원한 여름, 쉐보레와 함께 떠나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쉐보레는 볼트 EUV를 구매하는 고객이 콤보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일시불 구매 시 취득세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도·지자체 보조금 외 지역별 최대 39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경우 볼트 EUV는 콤보 할부 선택 시 최대 691만원, 일시불 최대 54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볼트 EUV 구매 고객은 3.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특별 할부 프로그램(선수율 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생산 월별로 최대 150만원의 유류비가 지원된다.

쉐보레는 트래버스 구매 고객에게는 특별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선수율 30%)을 제공한다. 콤보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최대 600만원 지원, 일시불 구매 시 취득세 400만원을 지원한다.

콜로라도 구매 고객에게는 1.9%의 낮은 이율로 최대 36개월 특별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콤보 프로그램 선택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시불로 구매하면 취득세 2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3년형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면 3.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한 특별 할부 혜택(선수율 30%)을 제공, 콤보 프로그램은 최대 200만원과 일시불 구매는 취득세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E-FINANCE’

### 7~8월 출고 전기차 충전비 지원·금리 할인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고객 대상으로 특별 금융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7월부터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부 금리를 인하해주고 7~8월 출고 고객에게는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E-FINANCE’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들 전기차를 구매할 고객이 표준형, 유예형, 거처형 등 어떤 할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6월 대비 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아이오닉 6을 모빌리티 표준형 60개월 할부로 6월에 구입 시 금리가 5.9%라면, 같은 조건으로 7월에 구입할 경우 4.9%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을 출고하는 고객에게 최대 160만 크레딧(1원=1크레딧) 상당의 전기차 충전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차는 7~8월에 이들 전기차를 출고하는 고객에게 80만 크레딧을 지급하고, ‘Hyundai EV’ 카드를 포함한 현대차 전용카드를 1000만원 이상 결제 및 블루 세이프 오토 이용 시 40만 크레딧, 현대차 신차 할부(1000만원 이상, 12개월 초과)·렌트리스 이용 시 40만 크레딧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금리와 전기료 상승으로 고객의 전기차 구매와 운행 비용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전기차 고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부터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고객에게 전기차 렌탈 시승을 제공하는 ‘썸머 위크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Summer Week Driving eXperience) 이벤트를 실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